

지역 위기 극복 관광정책 수립

군산시, SNS 기반 관광홍보 강화·공모전 개최 등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에 먼저 3월 중에는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군산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SNS 기반 관광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산의 매력을 주제로 '군산관광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작자, 관광산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아카데미를 개최해 관광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군산시 주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군산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들과 연계해 사전 공동홍보 마케팅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시티투어버스는 기존 운영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시티투어버스 접근성을 고려해 승하차 지점을 익산역까지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물품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는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버스킹, 길거리 미술,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주말 정가공연을 계획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군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공동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교육관광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군산 관광지 및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3월 중에 은파 수변산책로와 비응항 해양 체험 산책로를 개통할 예정이며, 고군산군도 내 편의시설 및 조형물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주요 관광지 내 자연 경관과 포토존을 연결한 연계코스 개발을 통해 관광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치매 인지강화 뇌 두드림 교실 운영

소통, 미성, 산복동 지역주민 대상

군산시보건소 서부권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서부권(소통, 미성, 산복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치매 인지강화 뇌 두드림(Do dream)교실'을 운영한다.



군산시보건소 서부권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치매 인지강화 뇌 두드림(Do dream)교실'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어르신'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보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서부권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매 진행속도를 지연시키고, 노인의 사회접촉 및 교류 증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활동여량을 향상시켜 가족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인지 저하자, 경도인지 장애자 진단자, 75세 이상 어르신이며, 프로그램은 주된 내용으로는 △ 외부 전문가 상담으로 신체활동과 노래를 병행한 음악교실 △ 뇌 자극으로 기억

력을 개선시키는 향기테라피 △ 심신의 안정을 돕는 힐링타임 원예심리요법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인지강화교육으로 치매예방체조, 교구 조립활동, 인지훈련 메뉴얼 두뇌튼튼 문제풀이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주관적 기억증상 척도검사를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하며 유소견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클리닉과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성장부진 아동 한방진료 지원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이사장 강성웅)과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한방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은 드림스타트의 성장부진 아동과 질병으로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등에게 필요한 한방치료와 한약을 지원한다. 이번 솔한의원의 지원은 취약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영양섭취 등으로 성장기를 보내는 아동에게 근본적인 치료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 발달과 정서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악취 없는 익산 만들어요”

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

익산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속도 축정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돼지, 닭, 오리, 가금류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속도 검사를 했으나, 금년 3월 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도 부속도 검사가 확대된다.

따라서 관내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128개소)가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속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속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속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확대

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익산시 축산과는 지난 1월 퇴비 부속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집합 교육을 시행하였고,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퇴비사 협소와 장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퇴비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장비 부족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용자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시행되는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선진 농업 환경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어려운 농가들이 실질적 해를 볼 수 있는 농업 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진 농업 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농가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행정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19일 농가의 용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미래농업 용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용자금은 100억원 규모로 농가당 5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이율은 3.9%이다. 이율은 익산시가 2.925%, 개인이 0.975%를 각각 부담하며 농민들은 1% 미만의 저렴한 이율로 최대 10년까지 용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던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보다 용자한도와 대출기간, 이율 등의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분야도 늘렸다.

농·임·축산업을 포함해 과수·시설원예, 화훼, 특용작물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된 용자금은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 저장시설, 판매장, 가공시설 및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이나 농지, 비료나 농약 등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것

은 제한된다. 또한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대출 잔액의 50%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 대환도 가능하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청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 가운데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농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나 농업경영체로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연간 60만원씩 일괄로 각 세대 당 1명에게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경영체,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하는 농가나 경영체는 마을이·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통장은 신청자의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홍보

군산시가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용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1~2% 수준의 저금리로 운용해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 관련 업소들의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용자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조각업소 등으로 영업신고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자이다.

용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업소별 신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최대 2억2천부터 2천만원까지다. 용자 이율은 연1~2%를 적용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시에 용자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 확인, 도에서 서류심사 및 결정해 시 및 위탁금융기관 통보, 용자대상신청 통보, 용자 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되며 용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 위생행정과(063-454-342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교령운전자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시행

교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교령 운전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산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교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도비 포함한 예산을 5천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1월에 '익산시 교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공포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